

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공일 : 2021년 12월 10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진 : 포함( 1매)</p>	작성과	의회사무과
		담당부서	부서장 : 김승구 팀 장 : 유병현 담당자 : 송왕우
		연락처	061)830-6097

## 고흥군의회 쌀값하락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급과잉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발표

- 고흥군의회(의장 송영현)는 12. 10.(금)에 제302회 고흥군의회 2차 정례회 10차 본회의를 마치며, 송영현 의장을 비롯한 쏬의원은 쌀값하락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정부에 공급 과잉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
-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98만 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3만 톤보다 45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- 실제로 쌀값은 10월 5일 80kg 기준 최고가 227,212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11월 25일 기준 211,992원에 거래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이에 고흥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규정한 「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·시행 규정」에 따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규탄하고, 쌀값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.

- 송영현 의장은 “지금이 바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농업인을 보호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공급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”을 강력히 촉구했다.

